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9. 15.(수) 배포</p>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보도일	2021. 9. 16.(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16.(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	과장	이혜진	(☎ 044-203-6345)
			사무관	한영진	(☎ 044-203-6381)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기 공모

-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 및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개발 사례를 찾습니다 -

- ◆ 공모기간 : 10월 1일(금)~10월 22일(금)
- ◆ 공모대상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평생학습을 이어가고 있는 성인
- ◆ 공모방법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누리집, 우편 접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22일(금)까지 '희망을 주는 배움에너지,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주제로 평생교육 참여 수기를 공모한다.

□ 교육부는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 유형별 수강현황 : 학력보완교육(47.4%) > 직업능력교육(17.5%) > 문화예술교육(16.1%) > 인문교양교육(7.0%)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현황 : 전국 약 1,700여 개 기관(지속 확대 중)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의 저소득층 성인에게 연간 35만원 제공 (우수이용자는 35만원 추가 제공하여 총 70만 원)
- 2018년부터 추진한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매년 확대 중
- 한국판 뉴딜 2.0에도 포함, 2022년 예산규모를 대폭(2배) 확대 편성

※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예산(정부안) : (2021) 74억 원 → (2022안) 141억 원(+67억 원)

- 지원인원 및 단가 : (2021) 15,000명 x 연35만 원 → (2022 안) 30,000명 x 연35만 원
- 우수이용자(전체 이용자의 20%)로 선정 시 35만 원 추가 제공(총 70만 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올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통해 1만5천명 이상의 학습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참여도가 높아 성인단계의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이용자 연령층: 40대(34.5%) > 30대(22.1%) > 50대(19.3%) > 20대(13.2%) > 60대이상(10.9%)

- 특히, 작년 수기 공모전 수상자 14명 중 11명이 40대 이상의 학습자였으며, 60대 여성학습자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많은 중장년 학습자에게 희망을 전달하였다.

어느덧 두 아이를 결혼 시키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아련하게 저려 옵니다. 마당 한 켠에 매화나무에서 꽃눈이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안내장이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했고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비가 좀 부담이 되었지만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활용하여 '떡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공부도 하다보면 하루가 너무 짧고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는 흐르는 시간이 아깝고 아쉽습니다. 지나간 시간, 아팠던 시절,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의 기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 2020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작 中 -

- 이번 수기 공모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여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평생 학습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 접수된 수기는 학습동기, 적극성, 학습 과정 및 성과 등 심사를 거쳐 최종 25점을 선발하여 교육부장관상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과 총 37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평생교육 학습자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시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심사결과는 11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2020년도 수기공모전 선발규모 : 14명(장관상 1명 포함), 경쟁률 11.7:1

※ 시상내역

- 최우수상 2명 : 교육부장관상 및 문화상품권 30만 원
- 우수상 8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및 문화상품권 20만 원
- 장려상 15명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및 문화상품권 10만 원

- 수기 공모는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병익 평생교육국장은 “2025년에는 25세 이상 인구가 전 국민의 80% 이상으로 전망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은 국가 미래전략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 “교육부는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개인의 가치실현과 삶의 만족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기공모 수상작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수기

그 날의 매화나무가 내게 전한 말, 그래, 다시 시작해! 언제? 오늘! 지금이야!

최우수상 김미라 (전남 광양시)

지난 1월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버스 안.
마이크 잡은 친구가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노래를 합니다.

차장 밖에는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두 아이를 결혼시키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아련하게 저려옵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부터 알아왔던 류마티스로 아이들 소풍
한번 따라가지 못했고 놀이터에도 혼자 나가서 놀아야 했던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자라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습니다.

돌아오니 집이 텅 비어있습니다.
아이들 방을 열었다 닫고 열었다 또 닫고 돌아서서 덩그러니
거실에 앉으니 “나 이제 뭘 하며 살지?” 한꺼번에 닥쳐온
공허한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아이들 생각에 참고 버텨온 기억들이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머칠을 감기처럼 공공알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 한쪽에 자리한 매화나무에서 꽃눈이 트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이려고 있으면 안돼 열심히 살았잖아”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받았던
평생교육바우처 안내장이 떠올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로운 변화를 안겨줄
희망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전통 디저트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전통 디저트는 종류가
다양하여 배워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학원비가 좀 부담이었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하여 “떡
제조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인생 후반을 위한 제투자로 생각하고 수제 청, 수제 식초,
도라지청과 등 여러 가지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기술이 생기니 창업 욕심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온나라가 시끄럽던 지난 4월,
드디어 공방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 오신 지인들은 언제 이렇게 기술을 익혔는지
놀라워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과 가족들의 격정 속에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리선생님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공방에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공부도 하면서 바쁜 일상을
이어갑니다.

공허함에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던 지난 시간, 아팠던 시절,
방황하던 나를 다시 배움의 길로 이끌어준 평생교육의 기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시니어 클럽에 수업하러 갑니다.
이제 저는 그분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공방은 학습 부진 아이들과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요, 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업료는 조금만 받고 재능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제가 이렇게 바쁘고 신나게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랫말처럼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실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숨은 시간 찾기가 가져온 일상의 기적, 나를 찾고 우리를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수상 이승연 (인천 미추홀구)

안녕하세요. 저는 알뜰하고 부지런한 아내와 다섯 개구쟁이 자녀와 함께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우체국에 출근하여 경비원으로 24시간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쯤 퇴근하여 부족한 잠을 잠시 자고 일어나 아내를 도와 가사 일을 돕기도 하고, 아이들과 집 근처 돌레에서 자전거 타기를 함께 하며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어느 날, 저의 아내가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알려주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아내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직 어린 3살 막내를 키워야 하고, 네 명 아이들의 등하교는 물론 공부를 봐줘야 했기에 일단 저부터 쉬는 날 뭔가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적극 권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최저임금 기준의 경비원의 급여만으로 다섯 명의 아이들과 생활해야 하기에 무언가를 배울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제 삶의 여가와 교육의 기회가 되어 줄 것 같았습니다. 마침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2차 접수 기간이어서 바로 인터넷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번인 날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을 받기까지 지역농협과 농협은행을 헛갈려 오고 가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3일 만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었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검색했습니다.

제가 격일제 경비원이라 직업 특성상 매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온라인 수업을 받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인해 4명의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강의와 화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까지 온라인 수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의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검색하고 전화로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개설되지 못하였고 개설된 과정이 있더라도 격일제 수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교육기관에 문의하던 중 OO 평생교육원의 가족공예 과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마음으로 추석 연휴 시작 전인 9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원은 작은 사무실에 대형 작업대 2대와 재봉틀 4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반겨주었고 손 소독제와 발열 체크 등 방역지침 후에 바우처 가족공예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근무시간에 따라 격주로 월요일 오후 2시에 수업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19시대에 방역 조치를 지키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수강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협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로 수강료 35만원 전액을 결제하였습니다.

가족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족 팔찌 2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족팔찌를 만들 때 종이 패턴을 따라 소가족에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따라 자를 대고 자르는 일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힘 조절 실패로 저의 오리기 작업은 자꾸 도면과 어긋났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접촉제로 감쪽같이 해결해 주셨고, 칼질할 때는 가죽이 밀려나지 않게 특히 손 조심 하면서 천천히 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재단한 가죽에 물을 묻히고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는 수지판을 덧대어 망치질을 하고 가죽에 무늬를 새겼으며, 비닐장갑을 끼고 손가락 면감갑에 염색약을 묻혀 작은 동그라미를 천천히 그리듯이 가죽 팔찌에 그리데이션 그래픽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가죽 염색법을 배웠습니다.

또 처음 만드는 3줄 꼬임 팔찌는 막내딸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염색하였고, 연이어 만든 5줄 꼬임 팔찌는 큰딸에게 주기 위해 카키색으로 염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팔찌 가죽 뒷면에는 천연고무로 마감제를 발라주고, 염색한 표면에도 마감제를 뿌렸으며, 마지막으로 단추를 달아 팔찌 2개를 완성했습니다.

옷에서만 보던 똑딱이 단추를 가죽 팔찌에 다는 방법을 처음으로 보고 배웠는데, 제 유년 시절 입던 옷이 떠올랐습니다. 한 발밖에 없던 겨울옷의 똑딱이 단추가 떨어졌을 때 속상했던 마음과, 떨어진 단추를 다시 달아보려고 여러 번 애를 썼던 마음과, 단추 없이 그냥 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아쉬운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큰딸과 막내딸에게 가죽 팔찌를 선물했는데, 큰딸은 엄마에게 아빠가 만들어줬다며 자랑했고, 막내딸은 핑크색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당신 바우처 교육받기 정말 잘했네요.'라며 사랑스럽게 웃어주었습니다.

첫 수업 이후 10월 12일 월요일 두 번째 수업에서는 손거울과 필통을 만들었고, 10월 26일 세 번째 수업에서는 카드지갑을 만들었으며, 11월 9일 네 번째 수업에서는 여권 지갑을 만들면서 가죽공예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오늘은 뭘 만들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고,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늘 설렘이 있었고, 24시간 근무의 경비원 생활이 피곤하지만, 격주로 이어지는 수업의 즐거움은 직장생활의 에너지로 작용했습니다. 가죽공예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일대일 개인교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업 중에 이해하지 못했거나 궁금한 것을 바로 질문할 수 있었고,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 수업은 학습의지는 물론 수업에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죽공예를 통해 재단, 염색, 편칭, 손바느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배우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듯했고, 특히 열심히 배운 가죽공예 기술을 응용하여 아이들에게 만들기 시범을 보이거나 작업 과정을 설명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만든 작품들은 모두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